교회는 왜 사회 참여를 하였는가?
- 70~80년대 군사 정권 하에서 -

김수환*

우리는 1961년 5·16 쿠데타부터 93년 2월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30여년을 혼히 군사정권 시대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 시기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는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시대였다는 것을 물론 잊어서는 안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 는도 많은 이의 기여 속에 아직도 악마를 남아 있을 만큼 독재 정권의 압제가 격심하였다. 그것은 밀고 올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 
룩하기 위해서 처려야만 했던 부득이한 최고였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 말에 
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처른 최고이 아니었 
다. 그것은 막강한 권력에 의해 강요된 최고이었고, 많은 경우 불필요한 뿐 아니 
라 부당하고 불법적이고까지한 인권유린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민의 참 
여 의무는 감소하고, 특히 인권유린과 사회정의 부재는 너무나 많은 이의 삶을 고 
통 속에 좌절하게 하였고 권력형 부정 부패를 만연시켰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연 
일 들물게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자금 사건이 이를 잘 
말하고 있다. 이로써 부부 격차,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를 치르고 
것은 오늘에서도 국민적 단합을 해치고 정치의 안정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 큰 장점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질 위주, 황금만능주의의 전도된 가 
치관은 성수대교 붕괴,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참극을 초래하 
였다.

우리 나라는 분명히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외교내교 와 
물성주의의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간과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교육 
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병균을 지니고 우리는 살

*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고 있다. 우리가 보은 미래를 위해 건전한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의 오늘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는 70년대에서 87년 6.29선언까지 거의 20년 동안 가장 심각하였다고 생각한다. 70년대에 어떤 시대였는지는 김지하 시인의 시 『五賊』과 『蜚語』가 잘 말해 준다. 오직 시는 70년에 『사상계』에 게재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오직이란 재벌, 정치인,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하 시인은 이로써 구속되었고, 몇 달 후에 보석으로 석방되기 했으나 이 시를 실었던 『사상계』는 폐간되고 말았다. 『비어』는 천주교에서 발간한 월간지 『창조』의 72년 4월호에 실렸는데, 이로써 김지하 시인은 수배되었다가 다시 구속되고 『창조』는 얼마후 휴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당시는 언론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고 인권과 학문, 노동계와 종교가 정부 사찰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국, 특히 중앙정보부에 임의 연행되어서 감옥살이까지 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하였다. 또한 70년 10월에 있었던 노동자 전태일 군의 분신 자살 사건은 이 시대의 노동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노동 3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급기야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10월 유신이 선포되었고 11월 21일에는 소위 유신헌법을 만들어 통일체제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8대 장기 집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그 이전에도 이미 71년 국회에 강요, 협박하던 시피 해서 통과시킨 비상법으로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유신으로서 절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74년 1월부터는 대통령 집권 조치령의 발동으로서 험의 통치, 공포 통치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상황은 무릎을 꿇고 순응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꽃짓이 서서 항거함으로써 퇴학, 퇴직, 또는 구속으로 감옥살이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삶과 죽음 중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공포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인권유권자가 일어났고 이에 저항하는 인권 수호와 사회 정의를 희생하는 소리가 대학에서, 언론계에서, 또는 노동계가 제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그 때에도 위수령이 있고 학교가 여러 번 휴교 조치, 또는 학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자주 일어났다.

이때 교회도 그날 방관자로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가톨릭 교회는 대체로 전통을 존중하는 편이고 현실 정치에의 참여는 극히 제한된 예외의 경우 외에는 피하는 보수적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에 동참하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가 예민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은 1967년도에 강화도 심
도직을 사전에 해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노동운동 타압으로서 야기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가톨릭노동청년회라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 때 마산교구 주교였던 나는 노동청년회 지도주교로 경계를 둣며 저와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었고 (개신교 목사님들, 또 성공회 신부님들 여러 분들이 함께 갔었다), 사제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은 다음 '역할받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천교구장 나주교관과 함께 주 교회의에 이를 전의하였고, 주교회의는 68년 2월 9일부로 노동자들과 사회정의, 인권을 위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한국 천주교가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인권 선언을 위해서 발표 한 최초의 성명서, 대사회적 발언으로서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 금이 남을 문사라 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71년 10월에 원주교구에서 교구장 김학 순 주교를 비롯하여 교구 사제 전원이 여러 날에 걸친 현실 분석 끝에 부정 부패 를 규탄한다는 시위를 하였는데, 이것은 주교와 신부가 집단적으로 한 역사상 최 초의 시위였고 과거에는 가톨릭 교회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1) 그 후 나는 71년 성탄미사 강론, 2) 또 72년 8월 15일의 시국 성명서 3)를 통하여 널로 일인 독

1) 그 당시 지학순 주교는 원주의 MBC 방송국을 5.16제독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5.16사태 제독이 지분의 51%, 원주교구가 49%를 갖고 있었는데, 저 주교가 경영정책에서 많은 부정 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제기로 해서 깊이 사회문제를 연구 검토하게 되었다. 그때 '오 적' 시사들은 김지하 시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이 동에 여성을 두고서 교구 신부 전원을 모아서 사회문제의 의견을 나눈으로써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사회 부조리가 얼마나 큰 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 주교와 사제단이 함께 미사를 드리고 난 뒤 제의를 입은 채로 거리로 나가서 부정부패 추방 대로를 한 일이었다.

2) 당시 박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가지기 위해 비상보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 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내가 성탄 사타 강론에서 지적하면서 비판한 항 일이 있었다. 그 때는 KBS가 미사 전체를 생방송하고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대국에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대부분 강론이 나갔을 때 나는 나가 있고 그 때문에 KBS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직위가 해임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그 당시 내가 그런 비판 을 한 것은 그때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포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 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3) 성탄 미사 강론과 같은 맥락에서 발표된 이 시국 성명서에서 강하게 지적한 것은 절대로 일인 독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발표를 하고 나는 아프리카 주교회의 초대를 받아 이시아 주교 대표로서 우간다로 떠났다. 그런데 한국 신문에는 그 당시부터 벌써 언론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명서는 동아일보에서만 겪어 발표가 됐고 다른 신문에는 보도되지도 않았다. 내가 떠나서 홍콩에서 하룻밤을 잡는데 홍콩에서 본 일본신문, 홍콩신문에서는
재로 가고 있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일이 있고 이 때문에 명동에 있는 성도 병원이 세무 사찰을 받기도 하였다.

가톨릭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과 사회정의 구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74년 7월 6일 민중권 학생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으로써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의구현사제단이 뜨거운 사제들이 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건과 문제들에 사제단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이른바 시국기도회는 자주 개최되었고 또 여러 경우에 내가 부득이 시국기도회의 미사를 주제하고 강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천주교회가 인권과 정의 구현, 우리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구성원처럼 비춰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87년 6.10 항거의 승리로서 6.29선언이 나올 때까지 명동 성당과 지방의 여러 성당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국기도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지학순 주교의 석방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동아, 조선일보 사건을 계기로 언론자유 회복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의 권익 옹호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회가 연이어 일어났다. 76년 3월 1일에는 명동에서 초교파적인 3.1절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때 윤보선 전직 대통령과 합석현, 김대중 및 정일형, 이태영 내외를 비롯한 재야 지도자들과 문익환동 개신교 목사들, 또 천주교 신부들 등 모두 함께 한 이들이 서명한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어, 이른바 3.1절 명동 기도회 사건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이로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안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며 되었다.

명동에서 있던 시국기도회에서는 서울동대 학생으로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과 유사, 양심선언문을 남기고 1975년에 자결한 김상진군을 위한 추도식도 있었고, 장준하 추도 미사도 있었다. 그밖에 인혁당사건과 관계되는 기도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노력하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된 시노트 신부(오엘 목사)도 그전에 추방되었다는 미사가 있었고, 78년에는 동일방직사건(6)이 일

제 크게 취급해 주었던 것 같다.

4) 동아일보는 장고가 제재되지 못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동아 투우 및 조선 투우와 함께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5) 당시는 추도식을 할 수 없는 시기였는데, 명동성당에서 추도식한 것이다. 일대가 완전히 경찰에 둘러싸여 전시 하에 적독을 포위된 것과 같은 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출입도 못하는 가운데 김상진 군의 추도식이 있었다.

6) 동일방직사건은 동일방직의 여자 노동자들이 해고된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축적적인 학대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명동을 찾아서 단식농성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달래
어나서 이를 위한 기도회를 크게 열었다.

이 무렵 가톨릭 농민 운동도 농민의 권익을 추호를 허용시키지 않기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개되고 있었다. 농민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남 함평 고구마 사건이 이어 79년에는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다. 안동 교구 영양군 출신이며 가톨릭 농민회 부두진이던 오원춘이라는 한 농부가 국무에 의해 남치를 당한 사건이었다. 그 납치의 진실 여부를 두고 교회와 정부와의 갱단 관계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전주교 안동교구장이었던 불란서인 두봉 주교(은퇴한 지금도 한국에 살고 있다)는 추방될 위기에 있었고, 전주교구 김세혁 주교는 전주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그때로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표현인 "헌신적인 (즉 유신 정권의) 임무 집행까지 가처분"을 주창하여 국무로부터 즉시 입건되었고 구속될 위협 아래 놓이고까지 하였다.

두 경우에도 모두 당시 주교회의 의장인 광주 운공회 대주교가 내가 관여하게 되었는데, 두봉 주교를 위해서는 로마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불럼을 받아 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서 로마는 당시 우리 정부로부터 두봉 주교의 교구장

기도했지만, 나중엔 결국 그들과 뜻을 같이 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7) 교구목사가 예년보다 더 많이 생산했는데 처음에는 농협에서 다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은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가톨릭농민회가 나서서 처 리하려다가 당국과의 충돌을 벌게 되었고, 운전자 김용 김대가 나중에는 결국 승리하여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다.
8) 오원춘 사건은 안동 교구 영양에서 일어났다. 농민들이 국무의 권유에 따라 감자를 심었다가 780여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많은 농민들은 처음에는 화가 아니라 국무의 희생에 넘어가서 청구 소송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가톨릭농민회 영양 청기문회장이었던 오원춘은 이를 기회가 관철하여 150만원의 피해 보상을 받아 내는데 성공하였고, 가톨릭농민회 기관지 제11호에 그에 관한 글을 게재하고 사례들의 모임에서도 그 내용을 발표하여 당국의 비용을 크게 사제되었다. 그러다가 1979년 5월 5일에 피해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남치되어 육영도까지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국은 오원춘이 엄지 문제도 있고 해서 육영도로 휴가갔다 온 것이다 주장했으나 사례단이 오원춘으로부터 직접 읽은 바로는 분명히 남치였다고 오원춘이 사제신 악을 통해 남치된 것이 진실임을 고백하였다.

이 사건의 진상은 두고 삼삼간에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법정으로까지 사제가 올라갔고, 교회가 정부 당국이 정면 대결하는 양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런데 오원춘의 양심 선언과 사제들 및 변호사와의 면담에서는 분명히 남치되었다고 고백하자 법정이 바로 사제로 전환되어 감사의 말에 다 수긍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 지고 말았는데, 오늘까지도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원춘은 무증 연고인지 안으로는 남치라고 하면서 이를 바로 확실하게 증언하지 않았다.
직 해임 압박을 받고 있었다) 문제 해결을 보았고9), 김제덕 주교의 경우에는 전주 까지 내려가서 함께 상경하여 대책을 수의하였는데, 당국이 구속할 방침을 확실히 세운 것 같았다. 우리는 결국 구속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였다. 우리의 이런 자세를 알게 된 당국은 마침내 구속 방침을 취소하였다.10)

79년 10. 26시대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끝나고 12.12와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으로써 등장한 이르바가 시대(특히 5일 시대)에도 인권과 사회 정의, 노동자와 농민, 도시 철거민들을 위한 교회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산 안양문화원 방화 사건의 관련 피의자 김현장과 문부식을 원주 교육원에 온실시켜 주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주교구 최고과학 신부가 구속되었다. 최고과학 신부는 피의자들을 권유하여 당국에 자수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매스컴을 동원하여 약 1주일간 가톨릭 교회가 거의 징공, 반국가 범죄의 소굴인 듯한 인상을 갖도록 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11)

한편, 교회는 1981년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고 이어서 1984년에는 한국 교회 200주년을 기념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 그리고 옛날 밖 해 때의 순교자 가운데 103위가 성인으로 공식으로 선교되는 시성식 등으로 교회

---

9) 한국 정부의 두봉 주교 해임 압박에 대해 교황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나와 주교 회의 의장이었던 윤영희 대주교를 불러 사정을 묻어 보았다. 그때 두봉 주교는 사표를 낸 상태였는데, 그 사정 때문인 아니고 자기가 외국인으로서 너무 오래 교구장을 맡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사정이 난 당시에는 두봉 주교 본인도 오해할 피해하기 위해서 사표 반납을 원했고 우리들도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래서, “반일 사표가 수리 된다면 마지막으로 해임시키는 것 같이 되어서 결국은 로마가 이 사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따르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설명하여 교황도 알아 둔과 문제가 우리들 돈대로 해결되었다.

10) 그때는 우리의 회의와 대회가 모두 도망되고 녹음되는 상태이었다.

11) 나는 그때 그 사정을 오늘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한 신부가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를 찾아와서 습격 당하고 할 때에 이유를 잘 모르더라도 우선 습격 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 다. 나중에 이유를 자세히 알고 난 후 본인들을 설득해서 자수까지 시켰는데도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아갔다. 물론 아니라 그 일을 벌이므로 해서 교회를 그렇게까지 해도한 것이 다. 그 시대에는 수녀들이 길을 지나다가 사람들이로부터 ‘저기 발생이 지나간다’는 욕을 먹어 먹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교회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언론은 둘은 적도 하지 않았다.
자세의 내적 쇠퇴를 위한 노력에 많은 힘을 쏟기도 하였다. 하지만 87년 1월 박종철군의 고문 처사 사건의 실상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밝혀지면서 민주화 운동은 다시 열기를 띠었다. 그 힘이 결국 6.10 항거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보듯이 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동안, 또는 87년 6.29선언이 있을 때까지, 교회는 인권과 사회 정의, 이 민의 민주화를 위해서 깊이 참여할 뿐 아니라 때로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가톨릭 교회 또는 명동 민주화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기도 하였다. 12)

이런 여러 사건과 사태의 와중에서 내가 어떤 심경이었는지는 표현하기 힘들다. 참으로 단순하지 않았고 어려할 바를 모르는 암담한 때도 적지 않았다. 많은 이들로부터 격려와 위로가 있었지만, 한편으로 정부나 교회 밖으로부터의 압력은 물론 이요 교회안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비판의 화살 앞에 서 있어야 했다. 교회의 정치문제 개입, 교회가 잃는 손해, 정부 공격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의 고충, 예수님과 복음의 빙자하여 말하지 말라! 등등 많은 비난이 있었다. 물론 그들도 다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한 데서 이런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너무나 피로 있고 고독하였다. 이렇 때 대단히 외롭되지만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 와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루가복음 4장 24절) 하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가끔 생각하였다.

74년 7월의 지학순 주교의 구속 같은 큰 사건이(이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고 한국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이 터졌을 때, 그것은 한국 교회로서는 처음 당하는 큰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의견의 차이 없이 모두가 함께 대처하였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이 생기고 거의 모든 시국 사건에 개입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두고 교회 내부에서도 상충부에서부터 진한 의견이 심각하게 갈라졌고, 때로는 서로 마음가 약박하게 하는 상처로까지 발전하였다. 참여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 모든 일이 틱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로마 교황청에 나를 고발하는 편지를 연명하고 보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나에 대한 견책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을 상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알기로 외무부 장관 들이 로마에 간 일이 있고 국

12) 대신 명동 성당은 오늘날까지 마치 누군가 외서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처럼 되어 버렸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많은 이익 집단들에 의해 때로는 몇 달씩 점거되기도 하였다. 88년 인가에는 전교조와 노점성이 들어와 한 달 이상을 함께 있었다. 명동성당 왼마당, 아랫마당, 지하철까지 점령되어서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도 마당에 누워있는 사람들로 이리저리 피해 드나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회의원, 그밖의 가톨릭 신자 장관 등이 갔었다. 이런 사정은 로마에서 나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이 때 교회 안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과는 다른 의미의 사제단인 구국사제단과 평신도 화목당원으로 이루어진 대전회가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사회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에 취하였다. 또 교회 밖의 단체인 국제 문화교류협력회라는 데에서는 구라파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자 되는 사람을 초대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 권력의 허위로 교회를 위임받게 하는 사람으로 메도하는 글을 구라파 신문에 실게 한 일도 있었다. 그 신문을 본 이들은 나에게 보내주어 알게 되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압력과 비판 아래 내가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신적 고충은 지금도 과연 감히 말로써 표현하기 힘들다. 단지 대부분의 경우 소수이지만 이해하는 이들도 있었고, 무엇 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아는 한 남만 앞에서의 기도로서 지탱하는 절박에 없었다. 나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이지만, 사전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께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여야 할니까? 어떻게 제가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자주 바치기도 하였고 동시에 이제 이 이상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도회나 강론을 해야 하는 일이 없을 만큼 사회가 밀리 민주화되기 어렵다는 마음도, 그로써 좀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였다. 나중에 6공화국개부시 언론 자유가 좀 진척이 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국에 대해 발언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럴 때면 '전에는 다른 이들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나섰지만, 지금은 내가 아니더라도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고 대답했다.

이우 과로했던 경우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역시 지학순 주교가 수난을 받을 때였다.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었다가 내가 대통령과 연담을 하고 그날 저녁으로 돌려 냈는데, 머칠 뒤 다시 거액 연금을 당했고 그것이 지주교를 지극하였다. 이 때 어떤 점은 변호사가 지주교에게 군사 재판을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발표하여 정면 대결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었다. 나는 지주교로부터 상의를 받고 분열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반포하였다. 그러나 변호사가 계속해서 지주교에게 정면 대결을 강력히 권하는 바람에 지주교는 그저에 심경이 더 가울어져 있었고, 나는 그것이 지주교의 수감은 물론이요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을 억제하여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때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나올지, 그들은 온갖 조치를 모두 동원해서 교회를 괴롭히 며 단단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양심밖에 없다
은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지주교에게 “양심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5.18 사태 때가 가장 가슴 아팠다. 그리고 6.10 사태 때는 농성 중인 학생들을 구급 또는 해산시키기 위해 공권력 투입이 확정된 것을 정부 고위 관리가 나에게 전하려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 맨 먼저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부님들이, 그 뒤에는 수녀님들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경고하였다. 그 경고가 효과가 있었지 공권력 투입이 철회되고 며칠 후 학생들은 무사히 자진 해산해서 귀가할 수 있었다. 6월 19일 우리는 감사 기도회를 가졌다.
그럼 교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였는가? 그 둘중에 답을 드리는 뜻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1974년 7월 지학순 주교가 민청린학생사건에 연루되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되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일이 있다. 이 만남은 중정차장 김재규의 권고로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마라되었다. 13)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 번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지만 그에 나는 이야기가 가장 대화다운 대화였다 고 기억한다. 이때 박 대통령은 평체에 관하여 자기나름의 생각을 나에게 이야기 하고 나는 나대로 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맘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고 받는 대화였다. 박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것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종교 또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고, 둘째는 언론 자유 문제, 셋째는 노동 문제에 교회가 왜 관여하는가 전제였다.
박 대통령은 먼저 종교 또는 교회의 역할을 말하면서, 종교란 사람의 마음의 정

13) 지주교가 도착하는 날 사람을 비행장에 보냈다. 드랙에서 내리는 것까지 봤는데 어느새 그만 행동불명이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을까봐 사람을 보냈는데 정말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채 사흘이 지나고, 내가 몇 분의 주교들과 왜문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인 김재규가 나를 찾아와서 ‘저희들이 지주교님을 모셔 잘못 했다’라고 통고했다. 왜 그러는지 모르니가 민청린학생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였다. 내가 가서 지주교님을 만나쳤다고 하나가 자기가 안내했다고 해서, 남산 중앙정보부에 가서 지주교를 만났다. 지주교의 얘기들 들으니가 학생들이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기 에 돈을 좀 더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전복을 위한 돈을 대 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지주교를 만나고 완 뒤 우리는 그 대처 방안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김재규가 다시 와서 대통령 멘토를 제안해 왔다. 주교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더라도 찬반이 정확하게 갈은 수였다. 결국 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되었다. 고민 끝에 내가 김재규의 제안을 받아 들이겠다고 해서 대통령 멘토가 이루어졌다.
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겠는데, 그렇다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에 종교가 관여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고, 폐해가 분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이것은 사실 그 시대에 교회 안팎에서 계속해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 물음에 대한 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대통령께서 종교의 역할을 그렇게 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은 물론이고, 저와 같은 성직자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데, 각각게 그렇게 보시는 것은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종교나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첫째로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개개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뿐임니까? 종교나 교회는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구실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개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도덕과 윤리로서 정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정 부패로 썰어 가고 있는데도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적극 유기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가?

교회는 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파수꾼도 되어야 하고 그것의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정치, 경제도 포함되지 않겠습니다가?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치와 경제가 윤리, 도덕의 범주밖에 있 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다가? 그렇다면 교회로서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고 또 인간에게 근본적인 해를 입힐 때는 발언하고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각하께서 적절하신 정교분리의 원칙을 교회도 존중해야 한다고 볼니다. 교회가 정부의 인사나 경제 정책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성직자가 정치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그 나름의 인생관, 사회관, 세계관이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인간과 사회, 또는 세계의 발전과 구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가 여기에 위배될 때에는 발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언론 정책이 주재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그 당시 서울에서 인쇄되는 일간 신문이 그날로 평양에 간다면서, 남북 분단과 공산주의 혁명 첨부의 위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보의 절대적인 요건에 따라 현재의 언론 정책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그 정도만 해도 언론 자유는 충분히 있는 셈이라고 하였다. 나 역시 일간신문이 그날로 평양에 간다는 데는 놀라지 않
을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니 되물기까지 하였다. 그 때는 백서밀리도 없을 때인데 휴전선을 어떻게 무순 경로로 넘어갈 수 있는가 공급했다. 박대통령
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기술적인 면을 설명하시는 않고 ‘여러분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동감하면서 한편
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국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국력
이란 단지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국민의 단결된 힘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
무리 좋은 무기고 있고 잘 훈련된 군대가 있어도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정부
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신문을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하고 그것
은 언론 자유가 있으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은 모든 신문을, 당시
에 여러 신문들 가운데 그래도 시사비밀을 잘 가리 비밀할 줄 아는 신문으로 알려
진 동아일보까지도 서울신문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신문을 믿지 않는
것은 신문이 쓸어 할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언론 자유가 없기 때
문입니다. 신문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그것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을 때 거기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없고 국민이 나라
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 국력은 그만큼 약화됩니다. 따라서 언론 자유를 정부가
권력의 힘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니다. 각각에서 이 |_|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노동문제였다. 대통령은 종교계가 외 노동문제에 개입하느냐고
질의하였다. “全部이 개입하면 삼주라구”고 기업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면서 여러 기업의 사례를 대였다. 그때 가톨릭에는 노동청년회가 있었고, 개신교
에는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었는데 통칭으로 ‘도산’이라고 했다. 그래서 ‘도산’이 노
동문제에 개입하면 기업이 도산한다고,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을 포함하여 도시
산업선교 활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각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삼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주와 노동자의 노사 관계는 서로 맞서
기 쉽습니다. 한 쪽은 되도록 혈한 임금을 지불하기를 바라고, 다른 한 쪽은 적어
도 최저 생활(그 때는 정말 최저 생활비도 안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가 많
았다)을 할 수 있는 임금은 물론이요 한 문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기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간들을 임으키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로 문제를 대화로 둔 노사화함입니다. 노사 간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깊은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노동자의 없는 기업이 안되고 노동자는 기업이 없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아직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사를 당하고 사 용주 임의로 해고될 수도 있는 등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노사간에 간들간 불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힘의 센 편이 결국 이기게 마련인데, 그것은 언제나 사용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주는 본래 개개인 노동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강자인데 거기에는 중앙정보부, 경찰, 심지어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만들어진 정부의 노동청까지도 기업주입니다. 노동사회운 명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각계에서 2년 전(72년4월)에 저를 진해 여행(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대하셨을 때, 14) 고향 구미를 지나면서 자신이 태어난 집이 어디라는 것도 말해 주고 옛날 가난한 시절에 그곳에서 국공학교를 다니실 적에 고무신이 떠는 다고 신지 않고 들고서 철도길을 따라 통학하겠다는 회고담을 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신 분이라 뒤에 5.16 군사 혁명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이 망에 가난을 없애겠다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뜻을 지니신 대통령

14) 그때 박 대통령이 나를 초대한 이유는 71년 성탄 강론에서 비상보위법에 대해 비판한 것을 어떻게든 무마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보다 앞서 청과대 식사 초대로 한 번 만났고,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대되어 함께 기차로 진해까지 간 것이 두 번째였다. 그러나 어느 때고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다. 특히 72년 봄 진해에 갔 때에는 기차 안과 진해 공관에서 함께 식사한 시간 등 두려 11시간을 마주 많아 있었는데, 나는 말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혼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그 때 나는 처음 기회를 주면 나의 생각도 말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취소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 이념이 무엇인지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주로 듣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때 박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하리라는 것을 나름대로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내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좋게 말해서 우국지사라는 것이었다. 이 강산 구석구석, 나무 한 그루, 골 한 포기에서 짐суд이 안긴 대가 없었다. 한편으로, 동사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집착이 강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를 이루기까지는 스스로 물리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더욱 확고하게 섰다. 다음날 나는 진해를 떠나 혼자 서울로 올라오면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스럽고 대단히 우울하였다.
께서 노사 분규의 현장에 나가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옛날의 어려웠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노동자 편을 들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노동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께서 하실 그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 때는 노동 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물질은 공장에 들어가면 좋은 상품이 되어 나오는데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면 제품이 되어 나오는 것이 노동 현장의 현실이었다.

대체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였다. 그 밖에는 지하철 주교님을 그 밖으로 석방시켜 줄 것과 또 당시 민정부 학생자금으로 대통령 긴급조치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통교육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فل(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학생들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였다. 지주교는 그날 저녁으로 석방되어 제가 직접 중앙정보부에 가서 데리고 나와 이철과 다른 학생들은 며칠 후 국방부령관 이므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 박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주 뜻깊은 자리였고, 그곳에서 제가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나 자신의 생각일 뿐 아니라 당시 교회의 뜻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현실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는 1960~1965년까지 있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종교회의인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마련되었다. 이 공의회는 요한 23세 교황이 교회의 체신, 현대화를 부르짖으면서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4년 동안 이어진 회의였다. 그 공의회의 결론을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교회는 비록 그 기원이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세상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서, 즉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있고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은 공의회가 발표한 많은 문헌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정신을 가장 잘 밝히고 있는 것이 “현대 세계 속의 교회의 사목 현장”이라는 문헌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사회, 국가의 개념과 역할, 정치, 경제, 문화 등 현대 세계의 거의 모든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 문헌은 시작의 말로써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 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기에서 보듯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 특히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은 결
코 무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가 왜 지난 세월 군사 독재 정권 아래서 사회 참여에 적극 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사회 참여의 근원적 이유는 결국 인간을 위해서라는 데 있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현대 세계의 사악한장’에서도 전명하고 있듯이 “인간은 구원되고 인간 사회는 왜신되어야 하겠시” 때문이다.

교회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써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며, 따라서 세상 모든 것, 정치, 경제, 학문과 과학 발전 등 모든 것이 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는 것을 믿는다. 인간이 없는 지구, 세상, 인간이 없는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이 있어서 지구도 우주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나 경제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 결코 그 객제나 도구로 전락될 수 없다.

교회가 이상계 인간을 소중히 인식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근거한다. 성경에 따 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인간을 창조 하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도 역시 인간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죽고 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당신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인간 존엄성과 인간 평등의 근본 이유가 있다. 15)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며, 모든 인간은 그 자녀로써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며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하여 온 인류가 민족, 인종, 폐부색, 기타 모든 차별을 넘어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인류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교회는 이런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존엄성에 의배 되고 이 인간의 삶의 목적에 의배되는 반인간적, 반인륜적인 모든 것을 배척한다. 교회가 인간의 기본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회생을 치르면서도 노력하는 근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모범을 보

15) 우리는 흔히 인간은 존엄하다. 평등하다는 말을 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말하는 세계 여러 문 명국의 헌법은 모두 그 존엄성과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이 존엄 하며 평등한가는 과학으로든 무엇으로든 증명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를 현아이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 인간 존엄과 평등의 이유가 있다.
여 주셨다. 그 분은 본래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시며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시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죄에 물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곧 인간이며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이다. 16)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난한 이와 병자들,죄인으로 천대로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이를 사랑으로 받아 주셨다. 그리고 병고에 신음하는 이들을 다고쳐 주셨다. 그 처음의 힘은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었고 바로 사람이었다. 병자와 하나되어 그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교황 바오로 2세는 인간의 구원자라는 그의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간은 예의없이 누구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을 예의없이 누구나, 심지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에게 일치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독일의 복음 교회 목사이기도 한 신학자 몰트만(Moltmann)은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밝혀 당하시고 고독하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침묵 속에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형제이며 친구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에게 담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또는 그 이상을 이미 더 겪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몰트만은 특히 '하느님의 연민'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자신의 삶, 자신의 죄,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것이 교회의 사회 참여의 근본적 이유가 되는 것이다.


16)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표현은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경제가 있고 인간이 있는 양 삶고 있다. 경제 발전에 신앙처럼 충성되고 있다. 전통만이 아니라 저 길, 저 전널, 저 언덕, 저 강, 저 나라...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 생명 존중의 손길이 조금만 더 닿았더라면 그린 사고, 그런 참사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으리라는 한이 너무나 크다. 더 나아가 우리의 정치 체결과 사회 구조가 전근대적 폐쇄성을 탈피하고 혁신된다면 오늘과 같이 질식해야 할 상황에서 참된 인간 구제가 시작될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 우위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이 글을 쓴지 23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물질적 발전은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발전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된 도시가스 폭발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고를 보고 이를 더욱 심각하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사로잡혀있는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이런 엄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찾을 것인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질의 응답

질문: ‘인간이 그리스도의 길’이며 그러나 ‘인간이 또한 바로 교회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과연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을 정말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7) 그 때에도 그런 비참한 대형 사고가 너무나 많았다. 청량리호수에 어느 버스가 지나가는데 연락이 끊기면서 버스가 불에 빠져 사람들이 다 죽은 그런 일이 나에게 연상되어서 여기에 ‘언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찾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자기 몸값이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세법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회라는 곳에서도 ‘교회라는 것은 끝있이 쇄신되어야 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그렇겠지만 교회도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늘 쇄신하지 않으면 흐르는 물이 고이면 색도이 썩습니다. 늘 흐르는 물이 되듯이 자기 반성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앞으로도 교회는 사회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자금 조사라도군 그의 모든 조사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정의롭게 해결되어서 우리나라에 범이 살아 있고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일 수 있도록 문제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80년대 5. 6공 정권의 최고 지도자들과의 에피소드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는 여기까지만 발전한다, 예를 들면 ‘GNP 얼마까지만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수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관념적으로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추구해야저 그 이상 넘어가면 안되지 않는나 동에 관한 것입니다.
답변: 교회가 무슨 물질적인 발전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물질적인 발전의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주체로 할 때에는 인간의 발전이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물질의 발전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유전자 연구에서 인간을 돕는 의미로 식량 생산을 더 한다든지, 식이 잘 생산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낼다든지, 또 인간의 생명 조작이 지나치면 하느님에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나가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인간의 발전과 물질의 발전에서 교회가 무슨 계한을 보다 늘어져서 그런 수는 없습니다.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은 인간에게 주셨고, 단지 인간은 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을 위해서 또 하느님을 참이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발전시키가 나가야만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페 이아르드 사르댕이라는 분이 말했듯이 -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 '온 우주가 그리스도화되는 것,' 즉 우리 인간만이 그리스도화되는 것이 아니
고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야 된다는 데까지 발견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온 우주가 살아 계시는 허물님의 영광으로 가득차게 되는 그런 데까지 물질 세계도 인간 세계와 함께 발견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주는 희히 듣는 말로 빅뱅으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빅뱅에서 폭발될 때 그 물질이 지금 전세계를 이루고 있고, 전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과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몸 안에 벌써 200억년전에 폭발될 때 있었던 그 물질이 모두 공유되고 있는 점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피가 가까우면 혈연이 있듯이 물질로 볼 때 우주와 우리 몸과는 인체 관계나 혈연관계 같이 깊으니까 물질의 발전에 어떤 한계는 없고 단지 인간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12 이전 전두환세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는 80년 1월 1일 오전에 강자기 지역에서 제배 였다고 찾아 왔습니다. 그분이 12.12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들고난 다음 제가 그분에게, “계엄사령관인 정승환 장군이 박 대통령의 시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시해와 연관이 있었는지는 조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졌다”고 그 것은 당신 생각이다. 그러나 나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계엄 사령관이란 중책에 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잡아간다는 것을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 브러더당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좋을 먼저 빼 들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권이, 대권이 왔다 갔다한 것이다. 나는 그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분이 다른 분들에게 “평강히 섬셨다. 이해를 구하라 갔는데”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18이 넣을 때 광주를 들려 오는 소식은 너무 비참해서 제가 시국을 겪으며 가장 괴롭게 생각한 시간이 아마 그 때일 것입니다. 5월 20일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10.26사태가 일어난 그 안가로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광주에서 오는 사태에 대한 보고가 국방부를 통해 그 문단을 오는 것이나. 저는 그분에게 사태를 절대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말을 하려 갔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이야기가 계속 중단되자 결국 그분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지금 광주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국방부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TV에서 이희성 계엄 사령관이 광주 시민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경고를 들으니 큰 계엄군이 투입될 수 있고
그러면 벌어질 사태에 대해 너무 걱정이 되어 제 나름대로 될 수 있는가 생각하다 '위험하고 안전이 있으니 위험하게 전화해서 내가 강한 메시지를 나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그에게 전화를 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미군부대에 있는 우리 군중 신부들에게 미국 신부들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혀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황대사에게 발 떨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이런 상황이여서 잘못하면 우리 병력이 광주에 투입되면 시민하고 큰 유혈사태가 벌어질 염려가 있는데 이길 막고 싶다. 그런데 지금 위험하고 전학 연락이 안되니 크라이스턴 미군대사하고 연락을 취해 보려고 당신한테 왔다"고 하고 클라이스턴한테 전화를 했지만, 클라이스턴은 전화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날 클라이스턴을 찾아가서 "내가 어제 저녁 당신을 찾아왔다. 찾은 이유는 이거다"했다니, 클라이스턴도 "나는 그 시간에 위험에게 가서 위험하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위험한데 내 뜻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엄 사령관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광주에 병력을 투입해서는 절대로 안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온 대주교님이나 다른 주교님을 사이에 두고 시민들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병력투입으로 해결되느냐"고 했더니 그 분의 말이 "될 수 있으면 안하려 합니다. 추가경비 말씀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 분이 먼저 "자기계엄 사령관으로 있는 한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장군의 말은 믿는다. 그렇지만 다른 장군들도 당신과 흘듯 이 같이 하는가?"고 물었습니다. 이 분이 "전두환씨를 두고 하는 말인데?"고 해서 "전두환씨도 포함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편히 적극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질문: 노태우씨의 비자금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자존심, 존엄성은 상처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상처받은 존엄성을 치유하기 위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과 또 교회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60, 70년대 군사독재 체제하에서 교회도 사회참여를 하였고 학생들
도 사회참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학생들의 주장이 교회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적인 면에서는 교회의 그리
스도의 교리와는 상당히 대치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한 의견
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론: 한국통신 노조 사태때 민주화 성지 침탈 사건으로 인해서 저도 많이
분개하고 저도 미사에 참가 했었습니다. 그 때 종소리를 들으며 생각한 게 기
도에 대해 상당히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어려운 시대 때마다 기도의 한계
점에 대해 많이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사회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현재 상황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과 연관된 한국의 정계 사건에 있어서 교회가 택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
는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학생운동과 교육운동이 사실 어떻게 보
면 갈수록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었는지 놓치지 않는지 하는 문
제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생각하시는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 교회는 다른 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
했다면 한 것이지 그것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목소리
가,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하고 다를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이때 무슨 다른 역할이 따로 있다고 보
지는 않습니다.

명동성당도 학생들에 의해 많이 점거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그곳을 농성장
으로 쓰며, "여기는 신성한 장소로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
므로 향의를 하더라도 그 향의하는 방법은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때로는 학생들이 순응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계속 화염병을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교회나 독재정권에서,
평화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 폭력을 쓸 수 있으나, 뭐냐는 질문도 있습
니다. 그러나 결국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즉 폭력적인 방법으로써 문제 해
결을 제대로 한 일은 없습니다. 폭력은 사람을 자기 갈라놓고, 사회의 화합을
가져 오기보다는 사회의 부조리를 가져오고, 미움을 낳습니다. 따라서 폭력은
생산적이지 못하므로 우리는 학생운동이고 어디서고 폭력 사용은 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마르코스 치하의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사람

그리고 기도의 한계점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하느님이 금방 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침묵을 더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치에 맞서 싸운 개신교의 유명한 본 희생관한 사람은 ‘우리는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안에 살면서 동시에 하느님 없이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가 그 사람도, 그 어려운 시대에 하느님에게 기도하였을 때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모를 만큼 하느님이 침묵을 계속 지키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신앙을 저려야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과연 존재하느냐?’고 묻게 될 때에도 하느님은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당신의 제심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건강에 ‘영정이 운동의 점이다’란 표현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혈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입니다.

질문: 교회 내부에 여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라든가 등의 문제에 대해 교회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와 모순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찬양하고 세상을 공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가톨릭 교회의 여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여성이 왜 사제가 될 수 없는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격렬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서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2000년의 오랜 전통이 있고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뽑을 때 남자만 뽑았다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라는 논리에서 여자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뿳아내는 데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는 인상을 갖습니다. 물론 남녀는 인간으로서 평등합니
d. 그러나 남녀의 역할은 분명히 또 구별됩니다. 남녀는 별다 인간으로서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구별은 있어야 된다는 견적. 그 구
별에서 사회적인 역할이 과연 여자에게도 적합한가 하는 것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사제가 하는 역할을 볼 때 여성에게 - 얼마나
든지 논쟁을 할 수는 있습니까만 - 단 적합하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
d. 역할에 있어서의 구별은 결코 차별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도 필요합니다. 따
러서 남녀간 인간으로서의 평등과 남녀의 구별이 차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갖 악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감자기 큰
우황이 들했다든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할 때 막히는
리도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내 자식이..... 하느님이 정말 계시나는 교회에
서 울부짖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원한
담을 한 번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면 그분과 교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있다고 해도 지금 교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담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느님이 완전히 없고 신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교통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는 문제가 더 의미없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하느님이 있으면 하
느님께 원망을 하든지, 하느님께 항의를 하든지하는 의미라도 찾을 수 있을 잡
니다. 하느님이 없다고 했을 때, 하느님은 없는데 교통은 있고, 비참함이 있고,
인간은 저렇게 죽고 등, 어디서도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급방은
안된다 할지라도 그 교통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은 계시라고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교통을 겪은 분이 있었습니. 그분은 크리스챤인데 아동간 사건 때 자
가 남편이 폭사되면서 오는 교통을 이기지 못해 매일 같이 국립묘지 자기 남편
무덤에 찾아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 2년 지난 다음 저를 찾아 왔을 때 “저는
지금도 알아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통이 운좋이라는 것을 생각하
고 감사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통을 통해서 그 분은 더 깊은 힘으로 하느
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계기가 된 잡니다.